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㉑ 육도윤회도(1)



▶한줄 요약
지옥 세상에 떨어져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 원인을 붓다께서 통찰한 결과, 그 원인은 스스로 지은 악업이었다. 그리고 업 속에는 업행 또는 업력이 작용해 그것이 쉽게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 고통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業行' 때문

불교에서 나를 윤회하게 만드는 '이것'을 '업(業, Karma)'이라고 한다. 업이란 무엇일까? 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대장엄경론〉 속 어느 바라문의 질문을 살펴보자.

"친교 바라문이 (붓다의) 무아(無我)의 설을 듣고 의심이 나서 물었다. '만약 나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 윤회에 있어서 누가 후세에 태어난단 말입니까?' 제석천은 '과거세의 번뇌로 말미암아 여러 업을 지은 까닭에, 그 '업'에서 '현재의 몸'이 생겼거니와, 현재에 있어서도 다시 여러 업을 짓는다면, 내세에서 다시 거기에 해당하는 몸을 얻게 될 것이다. (중략) 자아가 없으면서도 업보(業報)의 어김없음이, 이 씨와 싹의 관계와 같다'라고 대답했다."

붓다는 "존재의 실체는 없다, 즉 무아"라고 밝히셨다. 이에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브라만교의 입장은 이렇다. 브라만교에도 불교처럼 윤회를 말한다. 하지만, 브라만교의 경우는 '아트만'이라는 생명의 근원이 있다.(아트만은 '숨쉰다'라는 뜻으로 이것은 자아 또는 아(我)로 번역된다.) 몸(육신)이 죽어도 아트만이라는 자아가 사라지지 않고 이것이 윤회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붓다 말씀대로 만약 무아라면 윤회할 것이 무엇이 있냐는 질문이다. 당시 신흥종교였던 불교의 교리, 무아를 말하면서 또 윤회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그림① 〈육도윤회도〉의 원판. 원판 외곽의 무수한 항아리처럼 보이는 것은 중음기간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② 〈화엄경〉 권제37 변상도, 감색 종이에 금으로 그림, 고려 14세기 중엽, 호림박물관 소장

씨와 싹의 관계, 인과의 원리

대부분의 불교 이외 타종교가 아트만 또는 영혼이 있다는 것까지는 인지를 한다. 즉, 물리적 신체와 별도로 '마음'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의식(또는 에고)이라고 한다. 대승불교에서는 영가(또는 영식 · 靈識)라고 부른다. 유식(唯識)사상에서는 말라식(제7식)이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혼백(魂魄)이라고도 한다. 어떻게 불리던 몸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 덩어리를 말한다. 죽어도 죽지않는 마음 덩어리를 어찌하지 못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구원을 신(God)에게 의탁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주여, 내 영혼을 구제해 주소서"는 발원이 기도의 핵심을 이룬다. 대중적인 아미타 신앙에서도 영가의 (극락으로의) 천도를 아미타에게 의탁해 천도재는 "나무아미타불(아미타부처님께 귀의한다)"이라는 장엄염불로 대미를 장식한다.

그렇다면, '영혼' 또는 '아트만'이라는 용어 대신에 붓다는 '업'이라는 용어를 썼을 뿐인가? '죽지 않는 에고의 마음'을 일컫는 또 다른 말일 뿐인가? 물론 아니다. 여기서 위에 인용한 제석천의 대답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는 업에 대해 "과거세의 번뇌로 말미암아 여러 업을 지은 까닭에, 그 '업'에서 '현재의 몸'이 생겼거니와, 현재에 있어서도 다시 여러 업을 짓는다면, 내세에서 다시 거기에 해당하는 몸을 얻게 될 것이다. 자아가 없으면서도 업보의 어김없음이, 이 씨와 싹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한다. 업을 설명할 때의 표현에 주목하자. 그것은 난데없이 덩그마니 있는 또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덩어리가 아니라는, 업의 원리를 말한다.

그 원리는 '씨와 싹의 관계'' 즉 '인과(因果)'라는 것이다. 타 종교에서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영혼'이라서 신에게 그 구원을 요청했던 이것을, 꿰뚫어(통찰해) 그것이 만들어지는 구성 원리를 본 것이다. 몸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고 남는 마음 덩어리(개체의식 또는 자의식)를 해체해 보니, 그 안에는 '원인과 결과'라는 에너지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이에 '업에서 몸이 생겨난다'라고 말한다. '업에서 몸이 생겨나는 과정'은 '12연기의 과정'으로 붓다에 의해 통찰된다. 이렇게 덩어리로 인식되는 '에고의 마음(유신견)'을 통찰해 분해해 버리는 순간, 무아(無我)가 드러났다. 씨와 싹의 관계, 즉 '씨'가 '업'이고 '싹'이 '몸'이라면, 씨라는 원인 덩어리는 분해해 버려 공(空)이 드러나 버렸다는 논리이다. 이제 공을 바탕으로 생겨날 싹(몸)도 없어진다는 원리이다.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도 제거된다. 이렇게 '존재의 원인

'업', 우리가 윤회하는 원인
업보, 씨와 싹 관계와 같아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수행
업 속엔 업행 · 업력 작용해
멈춰지지 않고 고통만 초래

제거법'을 붓다께서 스스로 체득하고 또 설파한 사성제와 팔정도가 불교의 핵심이자 모든 것이라고도 하겠다.

청정업과 부정업

그런데 업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청정업(淸淨業)과 부정업(不淨業)'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마음은 두 종류가 있는데,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붓다께서) 일체 중생을 관찰하기를 거울 속 모양 보는 듯하니, 중생의 삶과 나고 죽음 그리고 귀천과 부귀는 (자신이 지은) 청정업과 청정하지 않은 업, 그것에 따라 고통과 즐거움(苦樂)의 과보를 받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각자 지은 청정업과 부정업의 비율과 내용에 따라, 각기 천차만별로 다양한 양태의 결과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 똑같은 사람 하나 없이, 제각각 다른 모습에 다른 삶을 산다는 것. 하지만, 원인과 결과를 보는 통찰지(혜안 · 慧眼)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왜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이러한 삶을 사는지 도통 알지 못한다. 그저 난데없다고 생각하고 운명 또는 팔자로 치부하거나, 부모나 환경 또는 신을 탓한다.

붓다는 '청정업과 청정하지 않은 업'이라고 했다. 맑고 깨끗한 업과 그렇지 못한 (탁하고 더러운) 업으로 나누어 말씀하셨다. '청정업과 그렇지 않은 부정업'은, 후대에 '선업(善業)과 불선업(不善業)'으로 표현되고, 더 나중에는 알기 쉽게 '선업과 악업'으로 칭하게 된다. 탁하고 더러운 업, 즉 악업 에너지의 비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윤회를 해도 6개의 흐름 속으로 나뉘어 과보를 받게 된다. 이 6개의 흐름을 '6도(6개의 세상)'라고 한다. '육도윤회'라는 용어를 익히 접해보았을 것이다. 6도 중에 가장 밑의 3개의 세상을 삼악도(三惡道)라고 하는데, 이는 악업이 무거운 사람들이 윤회하게 되는 곳으로 지옥 세상(지옥도), 아귀 세상(아귀도), 축생 세상(축생도)을 말한다.

"(붓다께서) 나쁜 업(惡業)을 지은 이 관찰할 때 반드시 나쁜 갈래(惡趣)에 태어나고 좋은 업(善業)을 닦아서 익힌 이 인간이나 천상(人天)에 태어난다. 만일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한량없는 갖가지 고통 받나니 (중략) 이런 지극한 고초를 받지만 '업행(業行)'은 그를 죽게 하지 않는다."

–'부처가되다(阿惟三菩提品第)14'〈불소행찬〉

지옥 세상에 떨어져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 원인을 붓다께서 통찰한 결과, 그 원인은 스스로 지은 악업이었다. 그리고 업 속에는 업행 또는 업력이 작용해 그것이 쉽게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 고통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내는 천도재는 영가가 육도윤회를 벗어나 극락왕생하게 해달라는 취지인데, 육도 중에서도 특히(또는 적어도) 삼악도에만은 부디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강한 염원이 담겨 있다.

악업중생 구제 경전, 〈지장경〉

그렇다면, 지옥 중생에게도 구원은 있을까? 삼악도의 중생은 각성(스스로가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힘)이 없어, 자기 힘으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누군가 도와주어야 또는 구해주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등장하는 보살이 바로 '지옥 구제의 신'인 지장보살이다. 〈지장경〉에는 악업 중생들이 받는 업보와 업보로서의 무수한 지옥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무수한 지옥 불화가 그려졌다.

〈지장경〉에는 "미래의 미륵불이 출현하기까지 육도(六道: 지옥 · 아귀 · 축생,아수라 · 인간 · 천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한 후, 성불하겠다"는 지장보살의 서원이 나온다. 지옥이 너무 많고 지옥에 떨어지는 중생도 너무 많아, 백천만 억의 분신을 나투어 그들을 구제하는 신통을 보이는 지장보살. 하지만 악업을 끊임없이 되풀이해 다시금 삼악도로 물밀 듯 밀려드는 중생. 그런 중생이 너무나 많기에, 사천왕은 질문한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오랜 겁을 지내오면서 그와 같은 큰 원(大願)을 발했는데, 어찌해 지금에 이르도록 아직도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또 광대한 서원을 발하옵니까? 원컨대 저희들을 위해 말씀해 주옵소서."

즉, 지장보살이 중생 구제의 서원을 오래 겁 동안 거듭해도 악업 중생들이 (너무 많아) 도무지 줄지를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 저 많은 중생들을 모두 구한단 말입니까라는 것이다. 이에 세존께서는 지장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는 지 그 방편을 말씀 주신다. 지장보살의 지옥중생 구제의 방편, 과연 무엇일까?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부처님 가르침인 '佛法'을 보시하는
법보시 공덕은 보시 공덕 중 으뜸입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